

#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과 재구성\*

- 일본 지바[千葉]현 다테야마[館山] 사례를 중심으로 -

## Making and Rebuilding of Localities by Using Local Documents

- In the Case of Tateyama City, Chiba Prefecture(千葉県, Chiba-ken) Japan -

송 정 숙(Jung-Sook Song)\*\*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아오키 시게루[青木 繁]의 그림<br>「바다의 선물[海の幸]」 |
| II. 아이덴티티와 로컬리티의 형성과정              | IV. 지역 유적의 기록화를 통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
| 1.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 1. 사토미[里見] 성터 유적의 기록화                 |
| 2. 다테야마 사례를 통해 본 로컬리티의 형성과정        | 2. 태평양 전쟁 유적의 기록화                     |
| III. 지역 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 형성            | V. 맺음말                                |
| 1. 다이간인[大巖院] 사면석탑의 석문(石文) “나무아미타불” |                                       |

### 초 록

이 연구는 지역기록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새롭게 형성한 일본의 다테야마를 방문하여 이 운동을 주도한 아이자와 교수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답사하며 설명을 듣고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기록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형성한 사례로 사면석탑에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을 통해 <아시아와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도시>, 아오키 시게루가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그린 장소가 다테야마에 착안하여 <화가가 사랑했던 예술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재구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토미성이 유명한 대하전기소설인 「사토미 팔견전[里見八犬伝]」의 무대임을 밝혀서 유적으로 지정·보존하고, 잊혔던 태평양 전쟁의 유적을 발굴·연구하여 평화학습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평화의 도시>라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로컬리티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키워드: 로컬리티, 지역, 지역기록, 기록화, 일본 다테야마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ateyama, Japan with on-site observation conducted by Professor Aizawa, who organized this locality movemen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listening to people's explanations, observations and studying the related documentation. First of all, the locality of Tateyama City was formed by utilizing the historic records of the area. Through *Namo Amitabha* which was carved on the four-sided stone pagoda, the city formed the locality as the peaceful city. “*The gift of the Sea*” painted by *Shigeru Aoki* in this city contributed to the identity of this locality known as the ‘city of art which the painter loved’. The reconstruction of localities through the documentation of the relics are as follows. Satomi Castle, which was discovered to be the setting of the famous fictional saga *Satomi and the Eight “Dogs”* [里見八犬伝]. The excavation and research of the ruins of forgotten World War II, is another example of reconstruction at this locality. This locality is seen as ‘the city of peace’ and was reconstructed through a positive and future oriented attitude. It is noticeable that the locality of Tateyama city was newly formed or reconstructed using local records and documentation relics in the area.

Keywords: locality, region, records, local documents, Japan Tateyama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논문접수: 2015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6월 4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5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203-225,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203]

## I. 머리말



〈그림 1〉 일본의 다테야마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라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긍정적인 것,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자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성으로 번역되는 로컬리티, 즉 로컬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될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관한 심리학의 논의를 살펴보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고립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정옥분 2005, 339)고 한다. 그렇다면 지역의 정체성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형성 또는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2014년 8월에 방문했던 일본의 다테야마[館山]에서 로컬리티가 점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sup>1)</sup>

이들은 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장소 기억을 찾아내기 위하여 다양한 기록을 조사하고 연구

1) 2014년 3월 14일 <SSK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연구단>이 주최한 킬로쿼엄에서 정일지 박사가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에코뮤지엄 운동으로서 ‘장소 기억’의 구조화”에 관해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 다테야마의 이야기를 듣고, 그해 8월에 연구팀이 일본 다테야마를 방문하였다. 정일지 박사의 주선으로 아와문화유산포럼 이사장인 아이자와 교수로부터 다테야마의 로컬리티가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답사하고 의문사항들에 대해 질의하였다.

하여 지역에 대한 기록이나 유적들을 발굴해 내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탐구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그런 노력이 축적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지방정부와 국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유적을 보존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테야마는 자그마한 평범한 시골이 아니라 일본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기록과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형성 또는 재구성한 일본 다테야마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2014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다테야마를 방문하여 <NPO법인 아와문화유산포럼>의 이사장인 아이자와 노부오[愛澤 伸雄] 교수, 사무국장인 이케다 에미코[池田 惠美子]의 안내로 현장 답사를 하면서, 과정이나 동기 등 의문사항들에 대해서는 즉문즉답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자인 정일지 박사의 통역과 보충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아이자와 교수로부터 받은 책자와 다양한 팸플릿과 리플릿 자료, 에코뮤지엄 운동의 관점에서 다테야마를 분석한 정일지의 박사학위논문(鄭一止 2012) 등을 참고하였다.

지역 기록을 통해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사례로는 다이간인에 4가지의 문자로 새겨진 사면석탑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다테야마>, 화가 아오키 시게루[青木 繁]의 그림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통해 <화가가 사랑한 마을>이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재구성한 사례로 『팔견전(八犬傳)』의 무대인 사토미성을 발굴하여 사적으로 보전하고, 태평양전쟁에서 사용된 지하동굴 등 전쟁 유적을 평화 학습의 장소로 활용하여 도시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로컬리티의 형성과정을 아이덴티티의 형성을 통해 살펴보고, 일본의 다테야마의 사례를 통해 아이덴티티 형성의 과정과 방법을 살펴 볼 것이다. 장소 기억을 담고 있는 지역의 기록과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가 새롭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그 구체적인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을 중요하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장소기억을 지닌 기록과 기록화를 활용하여 지역의 로컬리티를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형성, 또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아이덴티티와 로컬리티의 형성과정

### 1.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그림 2> 지바현의 다테야마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익히 아는 김춘수의 시 “꽃”의 일부이다.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한낱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 준 뒤에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고 시인은 노래했다(정경일 2014, viii).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존재에 대한 확인이고 인식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자기인식에서 출발한다. 자기인식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초래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자아개념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이 자아존중감이다. 자아개념은 신체적 특징, 개인적 기술, 특성, 가치관, 희망, 역할,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자신이 독특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로서, ‘영혼의 생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인간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는 요인이다(정옥분 2005, 318-320).

에릭슨은 특히 청년기에 빈번히 제기되는 일련의 의문들 -- 즉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인물인가? 아닌가? --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확고한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개별성은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즉 자신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인식이다. 총체성은 자신의 욕구·태도·동기·행동양식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계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즉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정체감의 형성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정옥분 2005, 339).

확고한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개별성, 총체성, 계속성을 경험하게 되듯이,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개별성, 그 지역 사람만이 지닌 욕구·태도·행동양식 등의 총체성, 시간이 경과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의 정체성 형성이 그러하듯

이 지역의 정체성인 로컬리티 역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 2. 다테야마 사례를 통해 본 로컬리티의 형성과정

일본 다테야마는 “아와[安房]”라는 나라로 불려왔던 지바현[千葉県] 보소[房総] 반도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인구 4만 9,000여 명의 작은 어촌도시이다. 미나미보소시[南房総市]에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도쿄만[東京灣]에 접한다. 보소반도 남부의 아와국은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에 태평양을 향해 툇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있다. 다테야마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다테야마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기록과 유적들을 발견하고, 그 유적에 관한 장소기억이 담긴 기록들을 찾아내고, 그 기록의 의미를 해독하고, 그 기록이 생산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등을 탐구하여 일본 전체사, 나아가 세계사와의 관련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웃나라들과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억을 간직한 장소를 보존하면서 지역의 정체성, 즉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 가. 지역에 대한 관점 : 마을 전체를 박물관으로

다테야마에서 NPO(비영리단체)법인을 이끌고 있는 아이자와 노부오 교수의 지역에 대한 관점은 중앙 중심, 정치사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이다. 역사학에서도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사건과 문화가 있으며, 이러한 각 지역의 독특한 개별 세계가 중앙에 영향을 주어 중앙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시점이 주류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열도 전체상(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으로부터 역으로 전체상을 파악해 간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자와 교수는 지역의 모습을 밝히기 위해 지역에 남아 있는 역사, 문화, 문화재 등이 새롭게 지역 연구의 대상으로 자리 매겨지고 있다(아이자와 노부오 2001)고 말한다.

즉 마을의 역사를 국가사 나아가 세계사, 또는 국제관계사로 확장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마을에 남겨진 기록을 수집, 연구하며, 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와 교류를 통하여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장소 기억을 간직한 유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만들어진 “생활문화 그 자체를 박물관”이라 보고, 마을 만들기에 활용해 가고 있다.

### 나. 다테야마에서 로컬리티의 형성과정과 방법(鄭一止, 2012 : 제6장 참조)

다테야마에서 전쟁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을 사례로 장소기억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정일지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바현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온난한 기후의 다테야마에서는 반도의 특징을 살린 반농반어(半農半漁) 등의 1차 산업이 발달해 왔다. 전후의 다테야마시는 한중일 교류의 유적이거나 중세의 성터나 근현대의 전쟁유적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구를 살린 관광 도시계획에 주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해안도로의 개설, 국민체육대회의 요트경기 개최, 남유럽 풍의 해양성 리조트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NPO법인 아와(지바의 옛 이름) 문화유산포럼>은 평화·교류·공생의 정신에 의거한 다테야마 지역력에 주목하여, 지역 유산, 특히 전쟁유적의 중요함을 호소하면서, 그것들에 관련한 조사, 활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테야마·지역 전체가 박물관」이 되는 것을 구상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에 대해 학습하였다.

고등학교의 세계사 교사였던 아이자와 교수가 세계사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전쟁유적을 비롯한 지역유적에 대한 조사> 프로젝트를<sup>2)</sup> 수행하여 이를 발표하게 하였다. 1989년에 시작하였는데, 「학생출진 50주년」에 해당하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연구를 하였다. 전쟁관련 자료는 구제 중학교 일지에서의 기록 내용이나 관련 주민의 증언이 축적되어 다테야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와 지역에서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사가 조금씩 밝혀졌다. 예를 들면, 2차대전 말기에 「본토결전」이 상정되어 7만인의 군대가 배치되고, 군사시설이 구축된 것, 식량 증산을 위해 꽃 재배 금지령이 내려진 것, 엄한 감시 속에 놓였던 것, 종전 직후 본토에서 유일하게 4일간 직접 미군 군정이 실시되었던 것 등이 밝혀졌다.

한편, 아이자와 교수와 함께 평화교육의 소재로서 전쟁유적에 주목한 지바현 역사교육자협의회 아와지부(이하, 역교협)와 고등학교 교사 등 160여 명의 아와 군시민에 의해, 그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와 보존해 나갈 일을 목적으로 한 「전후 50년 평화를 생각하는 모임」 실행위원회가 1994년 12월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아와 지역의 전쟁유적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조사·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전후 50년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강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5년 8월에는 지역 내에서 전쟁과 관련한 최초의 전시회인 「전후 50년 평화를 생각하는 모임」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다수의 전시회나 강연회 등이 실시되었다. 이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역의 강사나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 모여진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

장소기억의 구조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유적에 대한 (i) 기초조사 (ii) 문헌조사, (iii) 면담조사 : 증언수집, (iv) 시민강좌, (v) 전시회, (vi) 강연회, (vii) 연대 활동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장소 기억이 대중적으로 학습되고 있었다. 즉 장소 기억을 간직한 유적을 시민과 함께 조사·연구하며, 장소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의 경험을 시민강좌를 통해

2) 아이자와 노부오 교수와 인터뷰, 2014. 8. 20. 다테야마.

주민들과 공유하고 전시회를 통해 시각화하며, 강연회 등을 통해 장소기억의 의미와 가치를 일본사에서, 나아가 세계사와의 관계 속에서 밝힘으로써 전쟁유적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유적 보존 전국네트워크> 등 전쟁유적에 관련되어 있는 전국의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조사·연구 하였으며, 2004년에는 <전쟁유적보전 전국 심포지엄 다테야마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전쟁유적에 관한 「발굴」의 작업은, 전국의 각종 미디어에 보도되어, 아와 지역의 전쟁유적이나 교육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스터디투어 요청도 많아졌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테야마는 바닷가에 위치한 변방이 아니라 일본사, 나아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기억을 간직한 중심지로서 부각하여, 이러한 유적들은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새롭게 인지하고 범국가적으로 보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Ⅲ. 지역기록을 활용한 로컬리티의 형성

다테야마에서는 지역에 소재한 석탑과 다테야마에서 생산된 그림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테야마에서는 4가지 문자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새겨진 다이간인[大巖院]의 사면석탑을 한국의 학자나 교사들과 공동연구하며, <한국·중국·인도 등 이웃 나라들과 우호·교린의 역사를 지닌 평화의 마을>이라는 마을의 아이덴티티, 즉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천재화가인 아오키 시게루[青木 繁]가 그린 그림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통해 그림의 소재에 대한 연구와 재현,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머물렀던 고타니[小谷]씨 주택과 아오키 시게루 50주기 기념비를 보존함으로써 <화가가 사랑한 마을>이라는 마을의 아이덴티티, 즉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 1. 다이간인[大巖院]의 사면석탑의 석문(石文) “나무아미타불”

에도[江戸] 시대에 한글로 씌여진 비석 「사면석탑(四面石塔)」이 다이간인[大巖院] 입구에 세워져 있다. 지바현 다테야마시[館山市] 오아미[大網] 에게 있는 다이간인[大巖院]은, 1603년 사토미 요시야스[里見 義康]가 오요레간[雄譽靈巖] 큰 스님에게 절의 부지를 기부함에 따라 창건된 정토종 사원이다. 이 다이간인에는 에도시대 초기인 1624년 연호가 새겨져 있으며, 사면에는 인도 산스크리트 문자·중국 전자(篆字)·일본식 한자·한글의 네 문자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새겨진, 「사면석탑」이라고 불리는 현(縣)지정 유형문화재인 명호석탑이

있다. 이 석탑은 16, 17세기의 아와(安房)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과 문화교류가 있었던 것을 느끼게 하는 흥미 깊은 문화재이다.(한글로 기록된 비석 : 대암사(大巖寺) 사면석탑, <http://bluewaves.tistory.com/955>)

『지바현문화재[千葉縣文化財]』에서는 지바현 지정 유형문화재 <사면명호석탑(四面名號石塔, 이하 사면석탑)>에 대해 “1624년에 오요레간[雄譽靈巖] 큰 스님이 건립했던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사각 기둥 모양의 명호석탑으로 총 높이는 219cm 이다. 석탑의 네 면, 즉 동서남북의 각 면에는 북(北)면의 인도 범자(梵字 : 산스크리트어), 서(西)면에 중국의 전자(篆字), 동(東)면에 조선의 한글, 남(南)면에 일본의 화풍(和風) 한자로, 일본에 불교를 전래해 준 각 나라의 말로 『南無阿彌陀佛』과 명호가 새겨져 있다. 이는 阿彌陀如來의 구제의 자비로운 빛이 널리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이하 생략)”라고 기록되어 있다(愛澤伸雄 2006, 55-58).



<그림 3> 다이간인과 사면석탑 전경



<그림 4> 한글로 쓰여진 나무아미타불(동면)



<그림 5> 전서(篆書)체 한자로 쓰여진 南無阿彌陀佛

한국에서도 지극히 희귀한 초기 한글 자형<sup>3)</sup>이 조각된 석조물이 왜 지바현 보소[房總] 반도 남단의 다테야마[館山]의 땅에 있는 것인가? 이 석탑은 16·17세기의 아와[安房]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과의 사이에 있어서 문화교류가 있었던 증거가 아닐까? 이처럼 석탑의 한 면에 한글로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에 기반하여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다테야마를 오래 전부터 한국과 우정을 나눈 <평화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절이 건립된 1624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가 조선을 침략한 지 33주년이 되는 해로, 이 해에는 조선통신사가 에도에 와 있을 때다. 이 통신사의 정식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임진왜란 때에 포로가 된 사람의 송환이 주된 임무였다(한글로 기록된 비

3) 사면석탑의 한글 서체를 동국대의 장영길 교수는 조선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언해서 가운데 『阿彌陀經諺解』가 이 석탑 서체의 모델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아미타경』은 정도종의 중요한 소의경전이라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張榮吉 2002, 3-4).



석 : 대암사(大巖寺). 사면석탑, <http://bluewaves.tistory.com/955>) 이로 보아 전사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사찰의 전기에 의하면, 에도에 왔던 조선 통신사 일행이 다이간인에 들러 레간 큰 스님의 업적을 듣고, “살아있는 부처라며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 후, 에도막부에 등용된 레간 큰스님은 에도의 습지대를 매립하여 레간사[靈巖寺]를 건설하였다.

석탑의 네 면에 일본 한자, 인도 산스크리트어, 중국 전서체 한자, 한국 한글의 4개국어로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의 여섯 글자를 사해동린(四海同隣)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자와 교수는 해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새겨진 “나무아미타불”의 우측에는 시주자인 아마무라 시게히라[山村茂兵]가 建譽超西信士와 榮壽信女の 역수를 위해 기원했던 것이 새겨져 있고, 좌측에는 1624년 3월 14일 보주[房州]산 아래 오아미[大綱] 마을에 있는 다이간인의 단련사[檀蓮社: 檀蓮社] 오오[雄譽: 이름]가 쓴 글을 새긴 것을 통해 이 사면석탑의 건립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아이자와 교수는 이 석탑을 교재로 한 수업 실천이 계기가 되어 기록을 조사하고 한일 공동 연구도 수행한 끝에<sup>4)</sup> 이 사면 석탑을 아시아의 우정을 간직한 유적으로 기억하고자 <한글「사면석탑」과 아시아의 우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해로(海路)를 통한 아시아의 교류>를 상징하는 장소기억을 간직한 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해 한일 양국이 불편한 관계이지만, 이 비석이 한일교류의 상징<sup>5)</sup>으로 말하며, 해로를 통해 아시아와의 교류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해로를 통한 아시아와의 교류

다테야마 다이간인에 있는 「사면석탑」에는 일본풍(和風)의 한자, 중국 전자, 인도 범자, 조선의 한글 자형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새겨져 있다. 웅담로암 대사가 이 석탑을 건립한 1624년에는 조선통신사가 다테야마를 방문했을 것이며, 이때부터 전쟁[임진왜란]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1780년에는 조난 당하여 아와 앞바다에 떠내려 온 청나라 무역선 「원순호(元順号)」의 승무원을 아와의 어부들이 구조해 주었다. 이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이를 기념하여 지쿠라[千倉] 해안에 “일중(日中) 우호”라고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다.

또한 식민지시기인 대정(大正)기에는 한국 제주도의 해녀



〈그림 6〉 4개 문자로 새겨진 나무아미타불

4) NPO 법인 미나미보소 문화재·전적보존 활용 포럼, 「사면석탑(지바현 지정문화재)」, 자연·역사·문화가 풍부한 미나미 보소[南房總]·다테야마[館山][自然と歴史・文化の豊かな南房總・館山] (리플릿) <[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 [인용 2015. 3. 30].  
 5) 愛澤伸雄, “館山にある日韓交流の碑: ハングル四面石塔”, <もっと知りたい韓国> 講演會 자료.

가 많이 건너와 활동하였다. 태평양 전쟁 후에는, 압천의 장흥원에 수십 기의 묘가 세워졌다.

일본 최초의 수산실습 선박인 「가이오마루[快鷹丸]」는 도쿄에서 다테야마를 경유해서 출항하여, 1907년 9월 9일 조선해역인 영일만에서 조난되었는데,<sup>6)</sup> 조선 어부들이 승무원을 구조하여 4명만 희생되었다. 포항에 조난기념비를 세워 이를 기리고 있다. 태평양전쟁 때 쓰러져 묻혀있던 것을, 1970년대에 땅에서 파내 다시 세웠으며, 지금은 한일 양국 우호의 증거로, 한국 어부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이처럼 다테야마에서는 이웃나라들과 우정을 나누는 사례들을 조사·발굴하여 다테야마를 <이웃 나라와 우정을 나누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 즉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다.

## 2. 아오키 시게루[青木 繁]의 그림 「바다의 선물(海の幸)」

다테야마에서는 아오키 시게루[青木 繁, 1882~1911]가 다테야마에서 그린 그림인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활용해 <화가 사랑한 마을>이라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개발·형성하고 있었다. 다테야마에서는 아오키 시게루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묵었던 주택과 기념비를 보존하고, 그림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그들은 메라사키[布良崎] 신사(神社)에서 행해지던 참치잡이를 재현하는 축제, 즉 대형 가마를 어깨에 메고, 석양 때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 축제를 재현하며, 관련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의 화가들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었다.

다테야마 최남단에 위치한 메라[布良]는, 바다의 신 천부명(天富命)이 상륙했다는 신화의 마을이다. 수평선에는 후지산을 시작으로 이즈 오시마 등의 섬들이 늘어서 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참치 어업으로 번성했던 어촌이었으므로 인명사고도 많았다. 겨울 밤하늘에 빛나는 붉은 카노푸스를 “메라 별[布良星]”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당시 인명사고로 죽은 수많은 어부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青木繁<海の幸> 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青木繁が愛した神話のふるさと・布良 : <海の幸> 誕生の漁村のまちづくり, 리플릿).

1904년 여름, 화가 아오키는 친구들과 함께 메라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당시 큰 어선 주인으로,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고타니 기로쿠[小谷 喜録]의 집에 머물렀다. 후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바다의 선물(海の幸)」이 여기에서 제작되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南房總・館山市 布良という聖地, 리플릿)<sup>7)</sup>

6) 나중에 도쿄[東京] 해양대학으로 발전하는 수산교육기관은 1901년부터 현재까지 다테야마를 거점으로 실습 훈련하고 있다. NPO法人 南房總文化財・戦跡保存活用フォーラム, “快鷹丸遭難記念碑(韓國浦項市)”, “自然と歴史・文化の豊かな南房總・館山”(리플릿) <[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 [인용 2015. 3. 30].

이듬해인 1905년에 아오키는 다시 한 번 다테야마를 방문하였다. 당시 머물렀던 엔코지 [円光寺]에는, 본당의 입구문에 구운 못을 사용하여 그린 거친 바다의 풍경화가 남아 있다. 그림의 정경은 마치 엔코지의 창에 새겨진 용 문양과도 비슷해 보인다. 이 조각은 일본 최고의 조각가인 이하치[伊八]의 작품이다.

많은 화가들에 의해 사랑받은 메라에서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다. 데라사키 다케오[寺崎 武男], 나카무라 쓰네[中村 彝], 다타라 요시오[多多羅 義雄] 등은 메라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다테야마시에는 화가 아오키가 목었던 ‘고타니[小谷]씨의 주택’과 아오키 50주기 기념비를 보존하려는 모임이 있다. 화가 아오키 시게루가 고타니씨의 집에 머무르며 국가문화재인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그렸는데, 그 주택이 노후화되고 기념비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테야마시 지정문화재인 고타니씨 주택은 어업으로 번영한 메라에 남아있는 메이지 중기의 상류층 어부의 집이다. 그 구조는 분동(分棟)형 민가의 계통을 잇고 있으며, 지붕은 기와 지붕, 일부를 오오카베(기둥 양쪽에 판자를 붙이거나 회칠을 해서 기둥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한 벽) 구조로 한 방화 구조로서, 전통적인 방 배치를 벗어난 근대적 방 배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메이지 시기의 서양화가 아오키가 임시로 거처하며 「바다의 선물[海の幸]」(중요문화재)을 제작한 가옥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듯 고타니씨 주택은 역사적 가치가 높고, 동시에 지방적 특색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다테야마 시내의 역사적 건조물로서 중요하다.



〈그림 7〉아오키 시게루의 그림 〈바다의 선물(海の幸)〉



〈그림 8〉 아오키 시게루 서거 50주년 기념비



〈그림 9〉 아오키 시게루가 목었던 고타니 [小谷]씨의 집 전경

아오키의 「바다의 선물」이 1967년에는 근대 서양화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일본 서양화계의 여명기를 장식하는 작품으로서, 많은 후진에게 영향을 주었고, 「바다의 선물」이 그려진 6년 후인 1910년에는 같은 메라에서 나카무라 쓰네가 <해변의 마을(하얀 벽의 집)>을 그렸다.

7)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南房總・館山市 布良という聖地”,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바다의 선물(海の幸)」 기념비(비문)는 서양화계의 천재화가로 불리는 아오키 시게루(1882~1911)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의 삶이 3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생애였으나, 천성에 더해 열정을 기울여서 수많은 명작을 남겨, 메이지 낭만주의의 금자탑으로서 추앙받고 있다.

화가는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해였다고 이야기되는 1904년 여름, 다테야마 지방에 체류하며 대표작인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시작으로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다. 이 비는 화가를 경모하여, 그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의 서거 50년을 기념하여, 1962년에 연고지인 이곳에 건립한 것이다. 비는 이쿠타 도쿄대학 교수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건립된 기념비도 1998년이 되어서는 같은 국유지에 건립된 다테야마 유스호텔이 폐업됨에 따라, 건물과 함께 해체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아오키 시게루가 체류한 고타니씨 후손을 비롯하여 해당지구 연합구장회장, 각 구장, 커뮤니티 위원회가 연명으로 기념비를 보존하기 위한 요청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다테야마시가 국가에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철거를 막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산업의 쇠퇴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된 도미사키 지구에서는 “아오키 시게루의 「바다의 선물(海の幸)」 100년”을 계기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고타니가 당주(堂主)는 “아오키가 목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옥을 후세에 남기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이 뜻을 받들어 고타니가 주택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9월, 다테야마시 도미사키 지구 커뮤니티 위원회와 NPO법인 아와문화유산 포럼의 호소에 의해, 전국의 미술관계자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려, <아오키 시게루 「바다의 선물(海の幸)」 탄생 가옥과 기념비를 보존하는 모임>이 발족하였다. 2009년 10월, 고타니가 주택은 다테야마시 지정문화재가 되었지만,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보존 사업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웠다. 고타니가 주택을 비롯한 아오키 시게루 관련 문화재는 다테야마 시민의 재산일 뿐 아니라, 일본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 아래, 이 보존회에서는 보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 도쿄[東京], 교토[京都], 다테야마[館山], 후쿠오카[福岡] 등 주요 도시 순회 전시회(青木繁<海の幸>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青木繁「海の幸」誕生の家保存のために 青木繁「海の幸」オヌージュ展, 리플릿)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바다의 선물(海の幸)」이 탄생된 메라 지역은, 미술계의 성지로 불리어진다. 1962년에 아오키 시게루를 경모하는 예술가들의 기부로 세워진 아오키 서거 50주기 기념비는, 현재까지도 지역주민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아오키가 머물렀던 “고타니 주택”은 건축 130년이 지난 건물로 지금도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현재, 건물의 보전을 위해 전국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아오키 시게루가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제작한 집과 기념비를 보존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아오키 시게루가 목었던 「고타니 주택」의 보수기금을 전국적으로 모으고 있다. 다음은 그 안내문이다.

### 보소 바다에 혼을 쏟고 찾아오는 화가와 문인들

■ 아오키 시게루가 <바다의 선물>을 제작한 집과 기념비를 보존하는 모임(靑木繁<海の幸>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http://aoki-shigeru.awa.jp/>)

보소 바다에 혼을 쏟은 화가나 문인들은 때때로 이곳을 방문한다. 1904년에 22세의 청년화가 아오키 시게루는 사카모토 시게지로·모리타 쓰네토·후쿠다 다네라는 화가 친구들과 작은 어촌인 메리를 방문하여 <바다의 선물=국가 중요문화재>을 완성하였다. 아오키 사후 50년에 건립된 <바다의 선물> 기념비는, 이키다 쓰토무가 설계하였다. 아오키가 체류한 「고타니가 저택」의 보수기금을 모으고 있다.

결핵요양으로 다테야마를 방문한 나카무라 츠쓰네가 1910년에 메리에서 그린 <해변의 마을(하얀 벽의 집), 국립박물관 소장>은 신주쿠 나카무라 주택을 모델로 한 다테야마 나카무라 주택에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근대 조각의 아버지 나카누마 모리요시가 은퇴 후 다테야마로 이주, 관동대지진으로 잃은 지인을 그리워하며, 양각 작품을 제작하였다. 나카누마를 스승으로 한 테라사키 다케오는 보슈에 전해지는 신화를 소재로 프레스코 벽화 등을 제작, 아와 신사나 시모타테 마츠바라 신사 등에 봉납하였다. 구 아와 수산교의 초대교장 동상은, 전시(태평양전쟁) 하의 금속공출로 파괴되어 있었지만, 그때의 교원들이 남긴 석고를 토대로, 전후 재건하였다. 본래의 제작자가, 나가사키 평화기념관을 제작한 조각가 기타무라 세이보였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하야시 후미코가 보슈 시라하마 해안을 저술한 것 외에, 마사오카 시키, 와카야마 보쿠스이, 사사키 노부쓰나, 시마자키 도손, 나쓰메 소세키, 사토 하치로, 시라토리 세이고, 다카다 도시코 등 다수의 문인도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다테야마는 수도인 도쿄에서 멀지 않고 바다에 둘러싸인 과실이나 우유의 산지로 기후가 온난하였으므로 휴양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단순한 휴양도시가 아니라 이상과 같이 다테야마에서 그린 그림 「바다의 선물(海の幸)」에 기반하여 다테야마에서 제작된 그림, 조각, 문학작품 등을 발굴하여 다테야마를 예술인들이 사랑하여 자주 찾는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해 가고 있다.

## IV. 지역 유적의 기록화를 통한 로컬리티의 재구성

다테야마에서는 기억에서 사라진 유적인 사토미 성터와 태평양전쟁 유적의 조사·연구를 통해 기록화 하고 있다. 잊고 있었던 장소기억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토미 성터를 보전하고, 태평양전쟁 유적은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지역이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장임을 밝히고, 전범국으로 패전의 기억을 지닌 장소를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꾸어 로컬리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 사토미[里見] 성터 유적의 기록화

다테야마는 일본의 유명한 대하소설 『사토미 팔견전[里見八犬傳]』의 무대인 사토미[里見; 전국시대 일본 무장]의 마을이다. 15세기 중반부터 170년 동안 바다의 무장이었던 사토미[里見]가 아와[安房]지역을 다스리는 동안 많은 산성이 쌓여졌고, 다테야마는 교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진 성곽 마을로 발전했다.

『난소 사토미 팔견전[南総里見八犬伝]』은 에도시대 후기 교쿠테이 바킨(曲亭馬琴 1767-1848)이 1814년부터 1842년까지 28년간 집필한 전 98권 106책의 대하소설로, 그 당시 유행했던 전기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사토미 팔견전[里見八犬伝]』 혹은 『팔견전{八犬伝}』이라고도 불린다(南総里見八犬伝, <http://ja.wikipedia.org/>).

이 소설은 무로마치[室町]시대<sup>8)</sup> 후기를 무대로 하여, 아와국[安房国]의 사토미 일가의 공주인 후세히메[伏姫]와 신견팔방(神犬八房)의 인연에 의해 묶여진 여덟 명의 젊은이[八犬士]를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 전기소설이다. 이름에 견(犬)자를 공통적으로 지닌 팔견사는 각각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충(忠), 신(信), 효(孝), 제(悌)의 글자가 있는 염주구슬을 갖고 있고, 모란 모양의 사마귀가 신체에 있다. 관동지방에서 태어난 그들은 역경을 헤쳐 나가며, 인연에 이끌려 서로를 알게 되고, 사토미 일가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내용이다.

『사토미 팔견전[里見八犬伝]』과 다테야마와의 관계를 보면, 사토미성은 다테야마성을 뜻하는 명칭으로 1580년 아와[安房]의 무장이자 다이묘[大名]인 사토미 요시요리[里見義頼]에 의해 지어졌다. 다테야마와 『사토미 팔견전』의 관련성은 사토미가의 마지막 당주인 사토미 다다요시[里見忠義]가 에도막부에 의해 伯耆国[호키노쿠니]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1622년에 사망하였다는 점이다. 그 당시 충신 8명이 당주를 따라 순사(殉死)하였는데, 그 순사한 가신 8명 모두 賢(켄)자를 들어간 계명(戒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순사한 이들을 八賢士(하켄시 - 팔견전의 팔견사와 발음이 같다)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뼈 무덤을 다테야마 성 아래에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모델로 한 전기소설이 『팔견전』이라는 설이다(南総里見八犬伝, <http://ja.wikipedia.org/>).

이 소설은 출판된 에도시대 이후, 시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졌다. 1973년부터 2년간 NHK의 인형극으로도 제작되어, 보소 사토미 가의 이름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다(『南総里見八犬伝』と房総里見氏の城跡, 千葉県教育委員会 홈페이지). 현재에도 이 소설은 일본 전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로서 다양한 장르, 즉 만화(あべ 美幸 2011-2014), 인형극, 영화, 뮤지컬, 가부키, 연극 등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8) 무로마치 시대 [室町時代] : 일본 아시카가씨에 의한 무가(武家) 정권 시대(1336~1573년)로, 아시카가 바쿠후의 제1대 쇼군, 즉 장군인 다카우지의 근거지였던 교토 지방의 이름을 따 무로마치 시대라 부른다(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2002).



〈그림 10〉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재생산되는 『八犬傳』

현재 다테야마 성터는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이나무라 성터와 오카모토 성터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南総里見八犬伝」이 NHK의 인형극으로 방송된 적도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무대가 전국영주 사토미 가문이 170년에 걸쳐 통치한(NPO法人 南房総文化財・戦跡保存活用 フォーラム, “『南総里見八犬伝』と房総里見氏”, 리플릿) 아와국(현재의 남 소보, 아와 지역)인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96년에 사토미가의 이나무라 성터에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 성터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사적(史蹟)으로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마침 전쟁 유적의 보존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아이자와 교수는 지역의 중요한 성터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여, 지바현 성곽연구회나 문화재보존 전국협의회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시민의 뜻을 모아 <사토미가 이나무라 성터 보존회>를 결성했다. 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의회에 여러 차례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토미가 연구 심포지엄이나 강연회 개최, 「보소 사토미가」 강좌, 「사토미 워킹」, 「사토미의 길 워킹」 등의 가이드 투어, 그 가이드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자 강좌 등 연 2만인이 참가하는 다양한 이벤트 형식의 활동을 실시하였다(아이자와 노부오 2006, 16-29).

그런 가운데 사토미 가문의 발상지인 군마현 다카사키시 하루나 이동지인 토토리현 구라요시시 등과의 시민교류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수제 갑옷 강좌를 실시하는 「난소 사토미 수제갑옷 애호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7년에 걸친 사토미가 이나무라 성터의 보존운동의 결과, 도로 건설계획은 중지되었다(아이자와 노부오 2006, 18-19). 더욱이 2005년부터는 다테야마시에서도 이나무라 성터를 국가지정 사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鄭一止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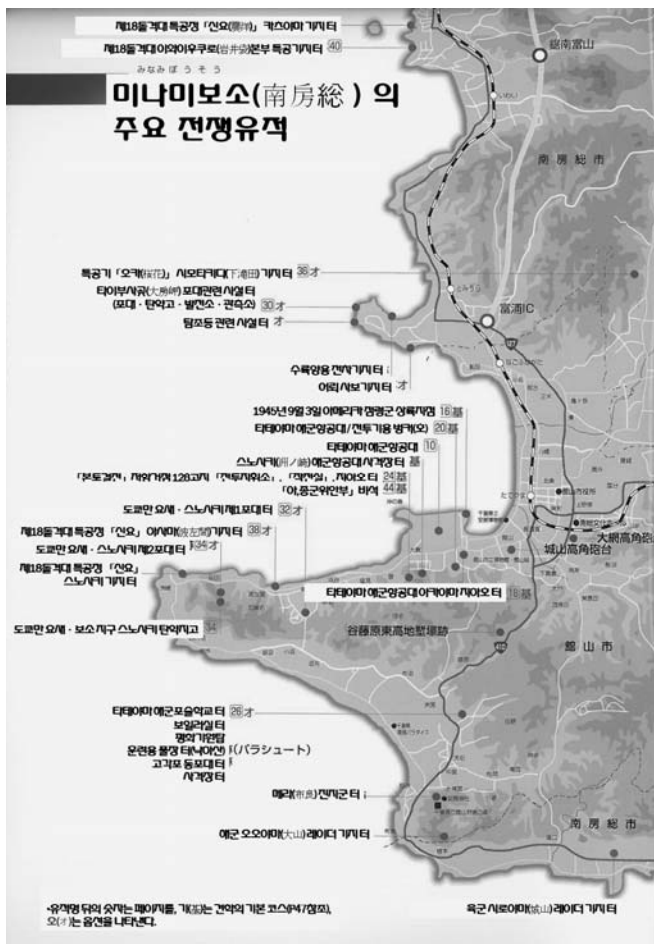
2. 태평양 전쟁 유적의 기록화

가. 다테야마의 전쟁유적

에도막부 시대 말기부터 태평양전쟁이 끝난 1945년까지, 도쿄만 입구에 있는 다테야마는 일본의 중심인 도쿄(에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소였다. 그 때문에 다테야마에는 다음 <그림 11>(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2)에서 보듯이 같은 많은 전쟁 유적이 현재도 다수 남아 있다. 주요한 전쟁유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館山市内の主な戦争遺蹟, 리플릿)

(1) 도쿄만 요새 [東京湾要塞]

일본 근대화가 시작되던 메이지시대, 당시 정부에게는 외국 군함의 침입으로부터 수도 도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사안



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육군은 도쿄만 연안에 많은 포대를 쌓게 된다. 이렇게 도쿄만 요새가 완성되어, 포대의 네트워크가 성립되었고, 다테야마 시내에는 스노사키 제1포대(1932년 완성), 스노사키 제2포대(1927년 완성), 북쪽의 미나미보소시[南房総市] 도미우라초[富浦町]에 다이부사미사키[大房岬] 포대(1932년 완성)가 설치되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3).

(2) 다테야마 해군항공대

제1차 세계대전(1914~1919년)에는 비행기와 같은, 이전까지의 전쟁에는 없었던 기체가 병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30년, 해군 5번째의 실전 항공부대로서, 다테야마 해군항공대가 만들

<그림 11> 미나미보소의 주요 전쟁유적



어졌다. 그로부터 1945년 종전 때까지, 다테야마시 일대에는 항공기의 수리, 부품 보급 등을 위한 제2해군 항공창(第2海軍 航空廠) 다테야마 보급공장, 식량·의복·연료 등을 보급한 요코스카[横須賀] 군수부 다테야마 지고(支庫) 관련 시설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10).

(3) 다테야마 해군 포술(砲術)학교·스노사키[洲ノ埼] 해군항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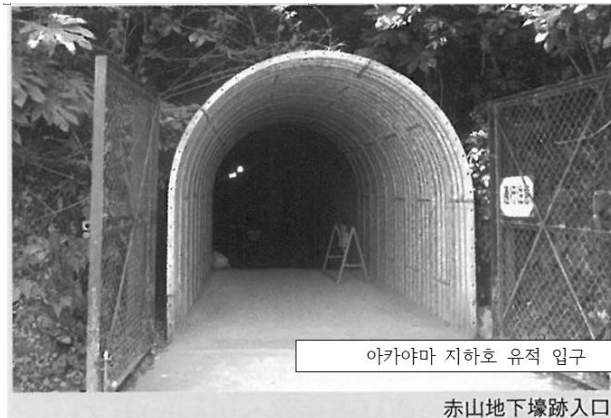
다테야마 해군포술학교는 1945년 6월, 육상에서의 대공사격(對空射擊)이나, 육전대(陸戰隊)에 관련된 전술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현재의 다테야마시 사노[佐野]에서 개교하였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26).

스노사키 해군항공대는 1945년에 다테야마 해군항공대에 인접한 다테야마시 가사나[笠名]에서부터 오카[大賀]에 걸친 일대 지역에 설치되었다. 실전 항공대인 다테야마 해군항공대와 달리, 이 스노사키 해군항공대는 항공병기 정비를 위한 항공대로서, 사격과 폭격, 무선(無線), 사진, 광학(光学), 어뢰, 전파 탐지 등과 같은 과정(課程)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다테야마에는 육군·해군 시설 이외에도 2개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군사시설이 있었던 장소는 일본 내에서도 많지 않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22).

(4) 다테야마 해군항공대 아카야마 지하호 유적

옆의 <그림 12>(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19)에서 보듯이, 아카야마 지하호 유적은 전체 길이가 약 1.6km로, 전국적으로도 큰 편에 속하는 참호이며, 다테야마시를 대표하는 전쟁 유적 중 하나이다. 이 지하호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2년 이후이며, 1944년 이후에 다테야마 해군항공대의 병사들이 호를 파기 시작했으며, 1945년 8월 15일 종전일까지 참호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시민의 증언도 있으므로, 미완성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미군의 공습이 격해진 태평양전쟁이 끝날 즈음, 이 아카야마 지하호 일부가 다테야마 해군항공대의 방공호로 만들어져서, 참호 내부에 발전소, 병실 또는 전신실(電信室)이 있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18-19).



<그림 12> 아카야마 지하호 유적

(5) 「아아[噫] 중군위안부」석비

1965년 후카즈 후미오[深津文雄] 목사는 사회에서 외면당한 여성들이 일생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부인보호시설 「가니타 부인 마을[かにた婦人の村]」을 설립하였다. 1984년, 한 명의 기숙사생이 스스로 중군위안부 경험을 목사에게 고백한다. 이 고백(「돌의 외침」<sup>9)</sup>)을 듣고, 시설 내에 있는 조금 높은 언덕에 1그루의 노송나무 기둥을 세운 것은 1985년이였다. 이듬해 그곳에는 「아아 중군위안부」라고 새겨진 석비가 건립되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44).

전쟁 책임이 모호한 채로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 중군위안부 문제는 한국, 중국 및 일본과 미국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다테야마에 있는 이 석비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6) 미 점령군 본대 첫 상륙 지점

도쿄만 입구에 위치한 보소 반도 남단의 다테야마는 전략 상 최중요 지점이었기 때문에 본토결전장으로 상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패전 직후 미 점령군 본대의 첫 상륙 지점이 되었다. 1945년 9월 2일, 도쿄만의 전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다음날 오전 9시 20분에, 커닝엄 준장이 이끄는 미 육군 제8군 제11군단 3,500명이 상륙용 배를 이용하여 상륙하였다. 상륙 직후 군인이나 시민들의 방해로 경계한 점령군은 다테야마에서 4일간이지만, 본토에서 유일한 「직접군정」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 상륙 지점의 일부는 현재 조선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당시의 콘크리트제 활주로 터는

9) <돌의 외침(石のさけび) : 전후 40년, 한 여성의 고백으로부터>

“후카즈(深津) 선생님께 ...군대가 있는 곳에는 위안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비슷한 특수간호사가 된다며 장교를 상대하는 위안부가 되는 것입니다. 병졸용 위안부 앞에는 관계 1회에 50전, 또는 1엔짜리 표를 산 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위안부는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씻을 틈도 없이 그들을 상대하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병졸들의 목을 베어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반쯤 미쳐 있었던 거지요.

...전쟁이 끝나고 40년이나 되었는데도, 전사한 병사들이나 민간인들은 각지에서 기리고 있는 데 반해, 전쟁에 끌려갔던 위안부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남양군도(南洋郡道), 알류산 열도에서 성적 욕망을 위해 몸을 제공하도록 강요 당했던 여자들은, 죽으면 정글의 동굴 속에 버려졌으며, 이런 상황을 부모에게 알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중간에 거처적거리는 짐덩이가 된 여자들은 바깥에 내던져져 황야를 떠돌다, 살이 얼어붙는 산과 들에서 굶은 채 들개나 이리의 먹이가 되고, 뼈는 그대로 흩어 되고, 가루처럼 부서진 수족은 진지(陳地)의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눈으로, 여자의 지옥을... 전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처지이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1년 정도 전부터 기도 하고 있으면 옛 동료의 모습이 똑똑히 떠오릅니다. 부디 진혼의 탑이라도 세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뿐입니다. 살아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戦争遺蹟』(館山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p.45.

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인 윤정옥 씨는 1980년부터 북간도·오키나와·태국의 조선인 위안부의 죽적을 방문했는데, 1988년 8월의 일본 방문 때에 이 석비가 있는 다테야마를 방문했다. 이것이 한국 KBS 방송에 의해 다큐멘터리 방송 『태평양전쟁의 흔 : 중군위안부』의 제작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 내에 큰 여론을 일으켰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다테야마 공항」기지에서 전후의 점령정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전쟁말기에는 본토 결전에 대비하여 육해군 7만 명의 병사가 배치되어, 농민은 식량공출을 강요당했고, 꽃 재배 금지령이 내려졌다. 아이들은 군사 이용연구를 위한 갯반디 채취를 명령 받았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16).

#### 나. 전쟁 유적을 평화 학습의 장으로

메이지 시대 이후 다테야마는 도쿄만[東京灣]의 요새로 자리매김 되어, 1930년에는 “다테야마 해군 항공대”가 설치되고, 조종사와 낙하산 부대의 실전 훈련 기지가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 본토 결전 체제하에서 아와 지방에는 인간 로켓 등의 특공 기지가 차례차례 만들어졌다. 도쿄만의 군사요새였던 다테야마가 이처럼 전쟁에 대한 장소기억을 많이 간직한 곳이라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아이자와 교수를 비롯한 지역의 연구자들이 지역의 전쟁유적을 발견하고는 국립공문서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연구 결과를 지역민과 공유하였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하여 지자체와 국가를 설득하고 요구하여 군사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1995년 히로시마 원폭 돔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일본 문화청에서도 전쟁 유적을 문화재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테야마의 전쟁유적도 사적으로 등록되고, 과거 세계 평화를 파괴한 부끄러운 전쟁의 현장을 가해와 피해의 양면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학습의 장으로 변신시켰다.<sup>11)</sup> 이를 통해 부정적인 지역의 정체성, 로컬리티를 긍정적인 로컬리티로 재구성함으로써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유네스코 현장에는 “전쟁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사람 마음 속이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이념에 공감하여 다테야마에서도 1948년에 민간 유네스코 운동이 시작되었다. 유네스코는 창조적 대화에 의해 전쟁을 해결하려는

11) <평화학습 프로그램>의 내용

- ① 강의 「다테야마에서 보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쟁유적을 활용한 교육과 지역 만들기」
- ② 전쟁유적 견학(기본 코스)  
아카야마지하호(다테야마지정문화재), 전투기용 엄체호 스노사키 해군 항공대 사격장, 미국 점령군 상륙지
- ③ 전쟁유적 견학(선택 코스)  
「아아 중군위안부」비(일본에서 유일하게, 위안부 경험의 증언자인 시로타 스즈코씨가 거주했던 시설 내에 위치), 128고지「전투지휘소」 「작전실」 지하호, 다테야마해군포술학교 유적, 특공정「진양」기지, 특공기「벗꽃」기지 등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東京灣要塞とアジア太平洋戦争”, “見る 歩く 學ぶ 集う 安房國 再発見!”,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평화의 문화”라는 사상을 제창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평화 정신을 가슴 속에 심기 위해 다테야마에 있는 “평화·교류·공생”의 장소기억을 찾아내어 기록화 함으로써 이웃과 공존하는 정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지향하고 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平和・交流・共生」の文化を學ぶ旅”, “見る 歩く 學ぶ 集う 安房國 再發見!”, 리플릿).

도쿄만의 입구에서 태평양을 향해 툭 튀어나와 있는 다테야마에는 15년 전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가해와 피해의 양면을 전쟁유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후 60주년에는 다테야마의 전쟁 유적을 무대로, 평화기념 영화 “붉은 고래와 흰 뱀[赤い鯨と白い蛇]”이 제작되었다(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49).

## V. 맺음말

개인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체성인 로컬리티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일본의 다테야마를 방문하여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아이자와 교수와 함께 현장을 답사하며 설명을 듣고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 기록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형성한 사례로는 우선,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새겨진 사면 석탑이 있었고, 이를 통해 아시아와 우정을 나누며 교류한 기억을 간직한 평화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아오키 시게루가 「바다의 선물[海の幸]」을 그린 장소가 다테야마임에 착안하여 <화가가 사랑했던 예술의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있었다.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로컬리티를 재구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로가 날 예정이었던 사토미성이 유명한 대하전기소설인 『사토미 팔견전[里見八犬伝]』의 무대임을 밝혀서 성터보존운동을 벌인 결과,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유적지로 지정되어 보존되었다. 다음으로는 잊혀졌던 태평양 전쟁의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현재는 평화학습을 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평화의 도시>라는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로컬리티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테야마가 바닷가의 작은 어촌마을이 아니라 일본의 관문으로서 일본사, 나아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며, 평화를 위한 공존의 도시라는 위상을 정립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여 주민들이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테야마에서 도시의 로컬리티는 지역의 기록이나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새롭게 발전적으로 형성되거나 재구성됨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도시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하지만 중앙, 서울로의 편중은 가속화 되고, 지방은 공동화됨으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의미있는 중요한 곳이고, 살 만한 도시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장소 기억을 지닌 기록과 유적을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여, 즉 기록화 하여 그 연구결과를 지역민이 공유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로컬리티를 형성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외지인에게 도시의 토산품만 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가치, 브랜드를 팔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sup>12)</sup>의 로컬리티는 어떻게 형성하고 재구성해야 할지, 장소기억을 지닌 기록과 유적의 기록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2002. 서울: 신원문화사.
- NPO法人 南房總文化財・戰跡保存活用 フォーラム, 『「南総里見八犬伝」と房総里見氏, [自然と歴史・文化の豊かな南房總・館山] (리플릿)』 <[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 [인용 2015. 3. 30].
- NPO法人 南房總文化財・戰跡保存活用 フォーラム, 『「南総里見八犬伝」と房総里見氏, [自然と歴史・文化の豊かな南房總・館山] (리플릿)』 <[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 [인용 2015. 3. 30].
- NPO法人 南房總文化財・戰跡保存活用 フォーラム, 『自然と歴史・文化の豊かな南房總・館山 (리플릿)』 <[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http://www.internet-ex.com/npo/images/korean-A3_0807.pdf)> [인용 2015. 3. 30].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平和・交流・共生」の文化を學ぶ旅, 見る 歩く 學ぶ 集う 安房國 再發見!,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2. 『戦争遺蹟. 館山: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2014. 青木繁が愛した神話のふるさと・布良: <海の幸> 誕生の漁村のまちづくり. 館山(日本): 青木繁<海の幸> 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

12) 부산광역시의 브랜드 이미지는 'Dynamic Busan'이다. 부산의 무엇이 "Dynamic" 한지, 언제부터, 어떻게 "Dynamic" 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산의 브랜드로 'Dynamic Busan'을 내걸려면, 'Dynamic'한 무엇을 찾아내어 연구하고 공유하여 Dynamic한 부산에 대한 시민들의 암묵적 합의가 있을 때 진정한 'Dynamic Busan'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로컬리티에 기반하지 않은 도시브랜드는 한낱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단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 會,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南房總・館山市 布良という聖地,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青木繁 <海の幸> 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 あべ 美幸. 八犬伝 : 東方八犬異聞. 第1巻(2011)~第14巻(2014), 日本 角川書店.
- 南総里見八犬伝. <<http://ja.wikipedia.org/wiki/%E5%8D%97%E7%B7%8F%E9%87%8C%E8%A6%8B%E5%85%AB%E7%8A%AC%E4%BC%9D>> [인용 2015. 2. 20].
- 이이자와 노부오. 지역교재로 한일교류를 배우다; 학생과 배우는 사면석탑의 수수께끼. 『제8회 한일 역사교류회. 진주역사교사모임 발표자료』. 2001. 8. 21.
- 愛澤伸雄. 2006. 江戸時代ハングル「四面石塔」のなぞ : 安房から見た日本と韓国(朝鮮)の交流, 足もとの地域から世界を見る. 館山(日本) :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
- 愛澤伸雄. 館山にある日韓交流の碑: ハングル四面石塔. 『もっと知りたい韓国> 講演會 자료』.
- 張榮吉. 館山市 大巖院 石塔의 한글 書體에 대하여. 『日本 千葉縣 學術發表會 발표요지』, 2002. 3. 23.
- 정경일. 2014. 브랜드네이밍.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鄭一止. エコミュージアム運動としての「場所の記憶」の構造化に関する研究 : 一連の学習活動を通じた「場所の記憶」の複合とローカル・キュレーターの開闢プロセス. 博士論文, 東京大學 都市デザイン研究室, 2012.
- 千葉縣日本韓國・朝鮮關係史研究會 編. 2008. 近世房總と朝鮮國. 東京: DTP出版.
- 青木繁 <海の幸> 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NPO法人 安房文化遺産フォーラム(리플릿).
- 青木繁<海の幸>誕生の家と記念碑を保存する會. <<http://aoki-shigeru.awa.jp/Section/item.htm?iid=57&TXSID=4uusigpa1fior51g2m77lj3n06>> [인용 2015. 5. 3].
- 한글로 기록된 비석 : 대암사(大巖寺) 사면석탑. <<http://bluewaves.tistory.com/955>> [인용 2015. 3. 25].
- 『南総里見八犬伝』と房総里見氏の城跡”. 千葉県教育委員会 홈페이지. <<https://www.pref.chiba.lg.jp/kyouiku/bunkazai/sonohoka/kyoudo/kuroshio/shiroato.html>>, [인용 2015. 4.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The stone pagoda written in Korean Alphabet : The Four-Sided Stone Pagoda of Taea  
msa Temple”, <<http://bluewaves.tistory.com/955>> [cited 2015. 3. 25].
- Kyung-II Chung. Brand Naming, Seoul: Communicationbooks 2014.
- Nobuo, Aizawa. “Learn Korea-Japan Exchanges by Local Materials : Puzzle of The Four  
-Sided Stone Pagoda Learning with Students”. 8th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s  
Seminar, Presentation Material of History Teacher's Meeting of Jinju, 2001. 8. 21.
- Ock-Boon Chung, Adolescence, Seoul: HakJi-Sa, 2005.
- Young-Gil Chang. “The Handwriting of Korean Alphabet of the Stone Pagoda of  
Taeamsa Temple in Tateyama”. Conference in Chiba Prefecture Japan, 2002. 3. 23.